

서울아산병원

VOL.660 2021. 9. 1



“배려하는 마음, 친절할 말투 고맙습니다” “어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응대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고맙다” 내과간호팀 이예일 사원이 받은 고객칭찬 카드다. 또 다른 고객은 “항상 웃는 표정으로 친절하게 대해줘서 다음에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간호사다” “궁금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줘서 좋았고 재치 있는 유머로 웃음을 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우리 병원은 고객 중심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수한 협업을 바탕으로 동료들에게 칭찬 받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객칭찬 우수직원, 동료칭찬 우수직원을 분기별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총 24명의 직원이 상을 받았다. 사진은 2분기 고객칭찬 최우수상을 받은 내과간호팀 이예일 사원(왼쪽 첫 번째)이 83병동에서 환자, 보호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5면)

02 NEWS 유방암 3D 수술 가이드 혁신의료기술 선정
07 사람 & 이야기 직원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보람

10 사랑시 · 행복구 · 동행동 AMC 남매에게 찾아온 ‘특별한 선물’
20 문화 · 생활정보 연휴, 휴가 동안 반려동물 걱정 마세요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소방시설 법정 점검이 8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원내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 상태를 점검한다. 사진은 8월 25일 동관 17층 소화전을 점검하는 직원들의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일품 한식당 ‘한강’

한우 사골을 12시간 우려내어 깊은 맛을 선사하는 한식당 한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회냉면(명태회)



11,000원

활전복갈낙탕



23,000원

위치 : 동관 지하 1층

영업 시간 : 오전 7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주말, 공휴일 휴무

추천 메뉴 : 설렁탕(8,500원), 비빔냉면(8,500원),
만두설렁탕(10,000원), 갈비탕(13,000원)
꼬리곰탕(16,000원)

세트 메뉴 : 비빔냉면 세트(비빔냉면 + 만두)(11,000원)

신규 메뉴 : 회냉면(명태회)(11,000원),
활전복갈낙탕(23,000원)

문의 : 02-3010-6398

※ 외래식당가 포장 판매, 직원 10% 할인
(사원증 또는 사번 제시 후 이용 가능,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 적용)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 | | |
|---|--|
|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김명숙(적정진료팀) | 미니 마사지기
강지윤(영상의학팀)
유은옥(임상연구보호센터) |
| 스카이라운지이용권(70,000원)
권근애(암병원간호2팀) | 달마이어 이용권
김미란(진단검사의학팀) |
|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김윤엽(영상의학팀) | 박경훈(응급간호팀)
신지훈(영상의학과) |
| 이상미(수술간호팀) | 전창우(시설팀) |
| 조정희(암병원간호1팀) | 조순남(중환자간호팀) |
| 최은정(외래간호팀) | |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제출 방법 동 · 서 · 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1년 9월 15일(수)
발표 제662호(2021년 10월 1일 발간)



유방암 3D 수술 가이드 혁신의료기술 선정



고범석 교수



김남국 부교수

유방외과 고범석 교수, 융합의학과 김남국 부교수팀이 개발한 유방암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가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의 혁신 의료 기술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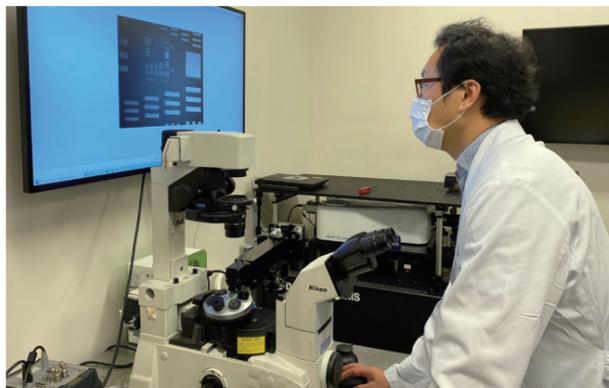
혁신의료기술은 국가에서 의료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을 높게 평가해 조건부로 빠르게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유방암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는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제작된다. 유방의 정상 조직과 암 조직 등의 검사 데이터가 3D 프린터로 전송돼 3D 모형이 만들어진다. 유방 보존술 전 집도의가 3D 모형을 환자의 유방 위에 올려놓고 암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해 수술 시 최대한 암세포만 제거할 수 있게 돕는다.

연구팀은 2015년 말 유방암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를 개발하고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해 왔다. 2019년에는 항암 치료를 받은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를 적용한 결과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평균 45개월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2020년에는 유방 상피내암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암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정확하게 절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효과를 입증했다.

고범석 교수는 “유방 보존술 시 3D 수술 가이드를 이용하면 유방의 정상 조직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정밀하게 암을 절제할 수 있어 앞으로 전반적으로 수술 결과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남국 부교수는 “환자들이 MRI를 촬영할 때 자세와 수술을 받을 때의 자세가 다른 점 등 정확한 수술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했는데 병원 내 임상 의료진과 의공학 전문가들이 힘을 합친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내시경 관련 특허기술 2건 이전



융합의학과 김준기 조교수가 내시경 현미경 결합 모듈 장비를 시험해보고 있다.

우리 병원이 융합의학과 김준기 조교수가 개발한 ‘내시경 현미경 결합 모듈’과 ‘생체 이식형 광학 부재, 의료용 내시경 및 광학 부재의 이식 방법’ 등 특허 기술 2건을 생체 광학 현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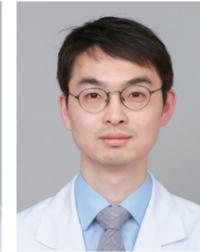
제조 회사인 아이빔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 최근 이전했다. 내시경 현미경 결합 모듈 기술은 상용 현미경 끝단에 내시경 모듈을 연결하여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살아있는 생체 시료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광학 영상 시스템에 탈부착이 가능하여 제작 비용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다. 생체 이식형 광학 부재, 의료용 내시경 이식 방법에 관한 기술은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광학 부재가 생분해성 재질이면서 광학적으로 투명하여 생체 내부에 광 경로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생체 내부의 고해상도 영상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김준기 조교수는 “상용현미경에 결합된 내시경 모듈 시스템과 생체내 이식 가능한 고해상 내시경 영상시스템을 결합하면 질환의 진단과 영상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가능성과 수요가 크다. 이번 기술이전이 생명과학 연구 발전 및 환자 진단 기술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으로 고위험 녹내장 환자 선별



성경림 교수



신중원 조교수

안과 성경림 교수·신중원 조교수팀은 인공지능망 기술을 이용해 9만 6,000여 개의 시야 검사 결과를 학습시킨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결과,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녹내장 환자를 약 86% 정확도로 선별해냈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과 전문의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약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시야 검사를 실시해 녹내장 진행을 예측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면 높은 확률로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판별할 수 있게 된다. 연구팀은 실명 고위험 녹내장 환자를 선별하는 인공지능 모

델을 개발하기 위해 1998~2020년 사이 녹내장으로 진단된 6,047명의 9만 6,542개 시야 검사 결과를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켰다. 연구팀은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본 뜬 인공지능망 기술을 적용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연속된 세 개의 환자 시야 검사 결과를 학습시켰다.

그 결과 약 42%의 민감도를 보였지만 약 95%의 높은 특이도를 보이며 전체 정확도 약 86%로 실명 고위험 녹내장 환자를 선별해냈다. 민감도는 실제로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진단할 확률을 의미하며, 특이도는 실제로는 질병이 없을 때 질병이 없다고 진단할 확률을 의미한다.

성경림 교수는 “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면 단 세 번의 시야 검사만으로 고위험 녹내장을 조기 진단할 수 있어 최적화된 치료 방향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안과 분야에서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미국안과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고혈압 전단계에도 관상동맥경화증 유병률 높아



이승환 교수



이필형 부교수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다. 우리나라에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

우를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미국은 2017년 고혈압 진단 기준을 140/90mmHg에서 130/80mmHg으로 낮춘 반면, 유럽과 우리나라는 기존대로(140/90mmHg)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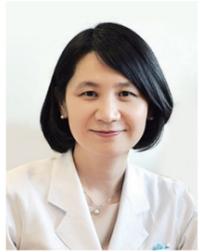
‘수축기 혈압 130~139mmHg, 이완기 혈압 80~89mmHg(국내 기준 고혈압 전단계, 미국 기준 1단계 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심장내과 이승환 교수, 이필형 부교수팀이 고혈압 전단계와 관상동맥경화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증진센터에서 관상동맥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수검자 중 심장질환이 없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한 적이 없는 4,66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대상을 미국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120/80mmHg), 고혈압 전단계(120~129/80mmHg), 1단계 고혈압(130~139/80~89mmHg), 2단계 고혈압(140/90mmHg) 네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관상동맥경화증 유병률이 정상혈압군과 비교해 고혈압 전단계에서는 1.12배, 1단계 고혈압에서는 1.37배, 2단계 고혈압에서는 1.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환 교수는 “고혈압 전단계와 관상동맥경화증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입증한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국내 고혈압의 진단 기준 재설정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인 「미국 고혈압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질 좋은 근육 많을수록 고혈압·당뇨병 위험 낮아



김홍규 교수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처럼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는 현상을 ‘근지방증(Myosteatorsis)’이라고 한다. 근육의 지방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근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근육의 질이 대사 건강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건강의학과 김홍규 교수팀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 없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전체 근육량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서 질 좋은 근육이 더 많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질 좋은 근육이 많을수록 대사적으로 건강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김 교수팀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성인 2만 659명의 복부 CT 영상을 영상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복부 근육(TAMA)에서 근육 내 지방이 적은 건강한 근육(NAMA)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좋은 근육량 지표인 ‘NAMA/TAMA’ 지표를 새롭게 개발했다. 지표가 높을수록 전체 근육량 대비 질 좋은 근육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고혈압 전단계, 당뇨병 전단계,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복부비만 중 2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거나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비만하지 않으며 대사적으로 건강한 경우 남녀 모두 NAMA/TAMA 지표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NAMA/TAMA 지표가 낮은 하위 25% 그룹과 비교했을 때 상위 25% 그룹에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은 남성, 여성에서 각각 약 28%, 43% 낮았다.

한편 비만한 사람에서는 근육의 질이 대사 건강과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내장지방과 이소성지방이 주는 해로운 영향이 건강한 근육이 주는 좋은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비만학회가 공식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인 「비만」에 최근 게재됐다.

신경중재클리닉 15주년 기념 세미나



세미나에서 신경중재클리닉 송윤선 교수가 ‘회귀 신경혈관질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경중재클리닉이 8월 20일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개소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세미나를 온라인과 동시에 개최했다. 1부는 ‘21세기, 그리고 신경중재의학’을 주제로 ▲회귀 신경혈관

질환의 현황과 미래 ▲뇌동맥류 당일입원 시술 등에 대해서, 2부는 ‘신경중재, 더불어 의료 문화의 변화’를 주제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 ▲지난날을 돌아보며 등에 대한 강의와 발표가 진행됐다.

신경중재클리닉 서대철 교수는 “신경중재클리닉 개소 1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이뤄온 업적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혈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신 지견을 나누는 데 신경중재클리닉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06년 개소한 신경중재클리닉은 영상의학과 및 신경외과, 신경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6개 진료과가 함께 협업하여 뇌혈관질환과 두경부 및 안면 혈관질환, 척추에서 발생하는 혈관질환 등 다양한 신경혈관질환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있다.

2분기 고객·동료칭찬 우수직원

2분기 고객·동료칭찬 우수직원 시상식이 진행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은 내과간호1팀 이예일 사원이, 고객칭찬 우수상은 임병원간호1팀 고윤희 사원 등 19명이 받았다. 동료칭찬 우수상은 시설팀 서영대 대리를 비롯한 4명이 받았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활동을 평가한 결과다.

고객칭찬 최우수상을 받은 내과간호1팀 이예일 사원은 “일하면서 받은 칭찬의 말들이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도록 노력하겠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힘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객칭찬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30만 원, 고객칭찬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시상

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았고 모든 수상자에게 꽃바구니와 케익 등이 전달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 이예일(내과간호1팀)

고객칭찬 우수상 고윤희(임병원간호1팀), 김선기(영상의학과), 김연수(어린이병원간호팀), 김정미(응급간호팀), 김혜진(임병원간호2팀), 박인재(대장항문외과), 박희수(내과간호1팀), 서동원(소화기내과), 서지현(대장항문외과), 서현아(내과간호2팀), 옥수정(외과간호2팀), 유문원(위장관외과), 윤화룡(방사선종양팀), 이다겸(국제교류팀), 이재영(외과간호2팀), 정윤서(임병원간호1팀), 조문경(임병원간호2팀), 한성준(성형외과), 황지현(임병원간호2팀)

동료칭찬 우수상 서영대(시설팀), 송승현(교육수련실), 이은옥(어린이병원), 정현주(임병원간호1팀)

코로나19 검체 대용량 검사 장비 도입



진단검사의학과 직원이 최근 새로 도입한 코로나19 검체 대용량 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팀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동시에 대용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cobas 6800 로슈 장비’를 도입했다. 이 장비는 검체의 핵산 추출, 증폭, 분석 등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검사 결과가 4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전산 보고된다.

진단검사의학과팀 임승택 유닛 매니저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하루 2,000건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염증성장질환센터 심포지엄

제9회 염증성장질환센터 심포지엄이 8월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5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진단오류를 최소화한 염증성장질환의 조기 진단 노하우 ▲기존 치료제와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 및 소분자 약물의 역할 ▲약제별 적절한 검사시기와 결과 해석, 활용 전략 ▲염증성장질환

모니터링을 위한 내시경 ▲소장 영상 검사의 적절한 적용 방안 ▲장관 외 증상과 치료 전략 ▲치료 도중 쉽게 접하게 되는 여러 감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큰 호응을 얻었다.

동정

김재광 교수, 최순진 연구원 우수학술상



정형외과 김재광 교수와 의생명 연구소 최순진 연구원이 7월 24일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에서 우수학술상을 받았다. 김 교수와 최 연구원은 '말초신경재생을 위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비세포성 신경도관 부착효율 비교'라는 논문으로 이 상을 받았다.

양지명 임상강사 서울특별시사회 의학상



안과 양지명 임상강사가 8월 29일 제26회 서울특별시사회 의학상(젊은의학자 부문)을 수상했다. 양 임상강사는 「알레르기 및 임상 면역학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함성원, 류승민, 김민정 연구원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융합의학과 함성원, 류승민, 김민정 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과학기술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의 박사후 국내·외 연수 부문에 선정됐다. 학문후속세대 과제는 창의적 기초연구능력 배양을 위해 연구자를 역량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함·류·김 연구원은 융합의학과 M2RL연구실에서 의료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와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사업에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류 연구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1년도 제2차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사업의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부문에도 선정됐다.

제13회 환자안전의 날

제13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가 8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올해 주제인 'AMC환자안전문화가꿈'은 환자안전문화가 꿈, 환자안전문화 가꿈이라는 두 가지 뜻을 중의적으로 포함한 주제다. 우리 병원은 환자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AMC 환자안전 현황 및 진행사업 ▲중심정책관 관리지침 개발 및 적용, 초응급 대량수혈 프로토콜 개발 등 환자안전문화를 위한 개선활동 ▲환자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격려제도 등이 소개됐다.

이날 환자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영상간호1·2 유닛을 비롯한 5개 부서가 '환자 안전사례 보고 향상부서' ▲심장병원외래 유닛 등 5개 팀이 '베터 솔루션 어워드' ▲암병원간호2팀 양애숙 대리 등 9명이 '굿 캐치 어워드'를 받았다. 박승일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 발전과 더불어 선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는 환자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개선해 온 결과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단신

소화기내과 임상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화기내과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이 교육과정은 ABLE 사용법, Excel을 이용한 데이터 핸들링, 영작 팁 등 논문 작성 및 발표에 도움이 될 내용을 공유해 호응을 받았다. 모든 강의는 동영상으로 녹화돼 소화기내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하반기에는 통계 프로그램인 R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우리 병원이 8월 20일 '서울시립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7월 21일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모니터링과 관리 및 치료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기간 동안 총 649명의 환자가 입소했으며 584명을 안전하게 귀가시켰고 65명을 전원시켰다.

직원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보람

최근 직원식당 메뉴가 화제다. “오늘 메뉴가 뭐지?” 매일 반복되는 질문에 흥미진진한 대답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팔도 맛 여행,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등 새로운 메뉴는 궁금해서 구미를 당기고, 맛있어서 내일을 기다리게 한다. 직원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총무팀 여동욱 주임과 그린푸드 민수진 운영총괄 영양사를 만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실>



신관 직원식당에서 그린푸드 민수진 영양사와 총무팀 여동욱 주임(왼쪽부터).

기억에 남는 메뉴는 무엇인가

여동욱 중복 특식으로 장어구이와 BBQ 플래터의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한가?' 싶었다. 그런데 가능하더라. 그것도 맛있게! 역시나 역대 중식 중 제일 많은 8,300식 이상이 나갔다. 참고로 보통 7,000식이 나간다.

민수진 아귀찜은 우리도 처음 해보는 메뉴였다. 해산물을 대량 조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 실험 조리를 반복하며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데 기대보다 반응이 없어 아쉬웠다.

여동욱 해산물 메뉴는 직원 선호도가 낮은 걸 감안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500식 정도가 떨어진다.

목요 테마 메뉴와 테이크아웃과 같은 시도가 새롭다

여동욱 직원들이 뭘 좋아할지 매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테마 메뉴를 기획하고 구체화한다. 신설된 테이크아웃 메뉴는 마트에 가지 않아도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출발했다. 조식의 경우 8시가 되기도 전에 다 나갈 정도로 호응이 크다.

민수진 요즘 새로운 시도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직원들의 피드백에서 개선점을 찾는다.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음식을 제공하기까지는 2주 전부터 기획과 레시피를 잡고 무수한 실험 조리과 자체 테스트를 거친다. 매년 설 특식으로 갈비찜을 준비하다가 올해는 전복왕갈비탕을 선보였다. 101명의 직원이 3.6톤의 왕갈비대를 일일이 전수 검사를 하며 핏물을 제거하고 개수를 확인해 탄생한 메뉴다.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민수진 퇴식구나 고객 접점에서 '오늘 맛있었어요'라는 칭찬을 들으면 주방에도 전달한다.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목표다. 목표를 이루면 힘들었던 과정도 다 잊는다.

여동욱 '집밥 같다', '할머니가 생각나는 맛이다'라는 댓글을 볼 때다. 또 게시물을 자주 올리다 보니 '좋아요' 개수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50개 이상 늘리니까 뿌듯했다.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동욱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맛 평가를 쉽게 했다. 이젠 그럴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담기는지 알기 때문이다. 격려를 해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민수진 새로운 메뉴는 항상 부담이 따른다. 그래도 무궁무진한 메뉴를 계획하고 있다. 더 기대해주세요도 좋다.

* 병원보는 '사람 & 이야기'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궁금한 직원, 알리고 싶은 동료라면 병원보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의생명과학교실 김용섭 조교수

RNA 간섭현상, 노벨상을 넘어 치료제로



2006년은 노벨상 역사상 보기 드문 기록을 세운 한 해였다. 먼저 RNA라는 하나의 주제가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휩쓸었다. RNA 간섭현상을 발견한 앤드루 파이어 스탠포드 의대 교수와 크레이그 멜로 매사추세츠대 의대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RNA의 합성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밝힌 로저 콘버그 스탠포드 의대 교수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각각 8년, 5년만에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노벨상이 결과 발표 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 후에나 주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 수여였다. 유전물질인 DNA로부터 기능하는 단백질 사이의 중간자로서만 여겨졌던 RNA가 드디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이다.

실제로 당시만 해도 많은 연구자들은 RNA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생물학의 중심원리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로부터 RNA로 전사가 일어나고 RNA로부터 단백질로 번역되어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DNA는 자손으로 전달되는 유일한 물질로 유전학의 핵심주제로, 단백질은 생명현상의 근간으로 집중 연구돼 왔다. 반면 RNA는 단순히 중간자이며 소위 지나가는 보조물질에 불과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DNA와 단백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현상들로 한계에 부딪혔고 인간게놈지도의 완성 등의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과학자들이 RNA의 새로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시 앤드루 교수와 멜로 교수는 꼬마선충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중나선 구조의 RNA를 꼬마선충의 세포 안에 주입했더니 꼬마선충이 온몸을 비트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입한 RNA가 꼬마선충의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생성을 억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특정 RNA 조각을 주입해 인위적으로 유전정보의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RNA 간섭현상이라 명명하였고 이후 여러 연구팀에서 인간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에서도 RNA 간섭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점차 일반화됐다.

이후 RNA 간섭현상은 분자생물학 연구의 핵심주제로 자리잡게 된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작은 RNA 조각(마이크로RNA)이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해 생명현상을 조절한다는 것이 많이 밝혀졌으며 이 마이크로RNA가 파킨슨 병이나 면역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됐다. 또한 RNA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외부에서 작은 RNA조각(siRNA)을 합성하여 세포에 주입하면 원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분자생물학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있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RNA 간섭현상을 통해 손쉽게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초로 RNA 간섭현상을 이용한 의약품에 대한 승인을 발표했다. 승인된 의약품은 바로 미국의 바이오벤처 엘나이람 파마슈티컬즈의 파티시란(제품명 온파트로)으로 희귀 신경 손상 질환인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증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이 질환은 유전자 변이로 잘못 접힌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신경과 심장 등 여러 장기에 쌓이면서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파티시란은 변이 트랜스티레틴의 mRNA와 결합하여 파괴하는 RNA 간섭현상을 통해 세포 내에 잘못 접힌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쌓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RNA 간섭현상을 발견한 지 20여 년 만에 마침내 의학계에 데뷔한 것이다.

이후로도 다양한 RNA 간섭현상 기반 치료제가 출시되었다. 2019년에는 엘나이람의 기보시란(제품명 기브라리)이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고, 이어 2020년에는 루마시란(제품명 옥슬루모)이 원발성 옥살산뇨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노바티스의 이상지질혈증 신약인 인클리시란(제품명 렉비오)이 유럽에서 처음 승인받기도 했다. RNA 간섭현상 기반 치료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06년 노벨위원회는 RNA가 단순히 DNA와 단백질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유전자 발현조절 물질이라는 것을 밝힌 앤드루 파이어 교수와 크레이그 멜로 교수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했다. 이 분야는 이후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험 기법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난치질환 치료제로 응용되고 있는 매우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그러나 더 많은 난치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 원하는 세포에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약물 전달법이나 안전한 RNA조각 설계 등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치료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p>앤드루 재커 파이어 (1959~) 미국의 생물학자</p>  <p>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대학원에서 생물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의학연구위원회 분자생물학연구소 연구원, 워싱턴카네기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로 근무 중이다.</p>	<p>크레이그 캐머런 멜로 (1960~) 미국의 생물학자</p>  <p>브라운대학교에서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소에서 박사 후과정 연구원, 매사추세츠대학교 의과대학 세포생물학과 강사, 분자의학과 강사를 거쳐 분자의학과 교수가 됐다.</p>
---	---

※ 사진 출처 : 노벨상 홈페이지

※ '노벨상 들여다보기' 코너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를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인간 생리의 원리를 밝혀거나 의학적인 진보를 이룩한 여러 연구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관련 연구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남매에게 찾아온 '특별한 선물'

사회복지팀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3월에 동생에게 신장을 이식한 이옥숙(43) 씨였다. '우리 곁에 힘이 되어줄 분들이 있구나! 절실히 느끼는 낯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비된 청춘

23년 전, 부모님은 삼남매를 두고 각각 집을 나갔다. 부부 싸움으로 조용할 날 없던 집에는 당혹스러운 정적만 남았다. 장녀인 옥숙 씨는 스무 살의 나이로 가장이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뛰며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 같은 시기, 고등학생이던 동생 철민 씨는 방황을 시작했다. 축구 선수로 합숙 생활에 들어갔지만 적응하지 못했다. 학교를 자퇴한 뒤 당구장에 드나들고 카드를 돌려 막다가 누나에게 손을 벌리기도 했다. 하루는 일진 친구들과 노는데 누나와 마주쳤다. "제발 정신 차리고 살자. 응?" 누나는 떨리는 손으로 뒷덜미를 잡아끌었다.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할 법했지만 철민 씨는 반항하지 않았다. 남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03년 철민 씨가 입대를 앞둔 때였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옥숙 씨는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한쪽이 마비된 동생과 마주했다. 심한 고혈압으로 이미 장기가 많이 손상되었다고도 했다. 옥숙 씨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야 했다. 주변의 추천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출산 직후임에도 아기를 맡기고 나와 동생을 간호했다. 다행히 철민 씨는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생 치료가 필요했다. "이 몸으로도 살 수 있어요?" 자신 없어 하는 철민 씨에게 신장내과 이상구 교수는 "마음먹고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요?"라며 되물었다. 따뜻한 위로보다는 따끔한 야단에 가까웠다. 그 순간 철민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행해졌다. 당장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일단 너부터

5년 전, 옥숙 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남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면서 두 딸만 데리고 집을 나왔다. 당장 갈 곳이 없었다. 그때 손을 내민 유일한 사람이 철민 씨였다. 뇌경색을 앓은 이후 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고 있었다. "철민아, 오래 신세 안 질게." "편하게 지내~ 혼자 오래 사니까 시끌벅적한 집이 그리워. 가끔 맛있는 밥만 해주라!" 철없을 적 누나에게 진 빚을 갚을 기회였다. 매년 생일 촛불을 함께 끄며 가족의 울타리를 확인하는 기분은 덤이었다. 갑자기 늘은 식구들로 살림은 복잡해졌지만 마음만은 안정을 찾아갔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다.

2020년 가을, 만성신부전을 앓아온 철민 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투석과 신장 이식 사이에서 속앓이가 시작됐다. 옥숙 씨는 이식이 필요한 동생의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도움도 청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 동생이 답답했다. "철민아, 당장 병원 가자. 형제니까 신장을 떼어줄 수 있을 거야." "일이랑 애들은 어찌려고?" 이식공여자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옥숙 씨가 일을 그만두면 당장의 생활비가 끊기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철민 씨가 말하지 못한 이유였다. 그러나 옥숙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일단 너부터 살려야지."

처음 느낀 보살핌

이식 수술은 해를 넘겨 7월에나 가능했다. 기다리는 철민 씨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졌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3월로 수술을 앞당길 수 있는데, 가능하세요?" "그럼요!" 기증자 검사 결과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식도 무사히 마쳤다.

수술 후 옥숙 씨는 병실에 있으면서 '만에 하나 잘못되면...'이라는 불안이 싹텄다. 그때마다 간호사들이 다가왔다. "속이 찌뿌둥하지요?"라며 등을 두드려주고, "부지런히 걸어야 돼요"라며 함께 병동을 걷기도 했다. 성인이 되어 처음 받아보는 보살핌이었다. 철민 씨도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검사실에 가자 직원이 대뜸 물었다. "혹시 인턴 선생님과 잘 아는 사이세요?" "아뇨?" "이철민 님의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 싶다며 의사 선생님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름도 모르는 이의 관심이 싫지 않았다. 아린 배를 움켜쥐고도 하루 종일 웃음이 나왔다.



고마워요, 가족이 되어주셔서

스무 살이 된 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걱정 말라고 전화했다. 옥숙 씨는 자신의 스무 살과 겹쳐져 마음이 미어졌다. 회복에 집중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팀 박종란 차장과 면담하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를 통한 병원비 할인과 병원의 후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간 의료진의 노력과 병원의 서비스를 떠올리면 염치없게 느껴졌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어리둥절해 사회복지팀에 전화했다. "저한테 돈을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병원 직원들이 모은 '모아사랑 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당분간 몸 추스르면서 생활비로 쓰세요." 벌컥 눈물이 쏟아졌다. 고맙고 행복한 눈물이니 마음껏 소리 내어 울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편지에 담았다. "서울아산병원의 도움으로 무거웠던 가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글썽하는 없지만 그 돈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뒤늦게 퇴원한 철민 씨도 인사를 보냈다. "이상구 교수님은 제가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몸 관리를 못 하면 야단치세요. 20년을 함께 보냈으니 가능한 거겠죠. 정년 퇴임하시면 또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강인하게 살아야 했던 남매의 삶은 내내 고단했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이라는 내 편이 생기자 겁날 게 없었다. 남매가 그리워했던 가족의 의미였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인생 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용혜원님의 시 「동행」의 한 구절입니다. 이곳은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곳. 사랑시(市) 행복구(區) 동행동(洞) AMC 입니다. 이 곳에서는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동고동락하는 AMC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격리 환자의 위기를 함께 건너며

중환자간호팀 김영용 주임



“환자들을 설득해야 할 때가 많아요. 환자보다 환자의 몸을 더 생각하죠.”

설명과 설득

한 환자가 직장에서 확진된 스트레스를 간호사들에게 투사하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환자분, 속상하시죠? 하지만 지금은 호흡이 중요하니까 숨 쉬는 데 집중해 주세요”라고 안내했다. “왜 멀쩡한 사람을 가둬요? 네가 뭔데?” 날카로운 대답이 돌아왔다. 이유 없는 항의에 감염 관리와 격리 치료 과정을 납득시켜야 할 때면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조금 버겁다.

“물 좀 주세요.” 또다른 금식 환자가 애원했다. “산소 요구량이 높아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기관 삽관을 할 수 있어 흡인 위험이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대신 거즈로 입을 닦고 스프레이를 뿌려 마른 입안을 적혀주었다. 환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했다. “제가 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매일 부서 게시판에 좋은 간호 사례를 취합해 공유한다.



환자를 안심시키며 간호를 이어가는 김영용 주임(왼쪽).

“특수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간호합니다. 무겁고 갑갑한 보호구를 입은 채로요!”

격리중환자실의 하루

오전에 도착 예정이던 전원 환자가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했다. 전원 보내는 병원과 구급차, 보안관리팀과 긴밀한 상의가 필요한 과정이었다. 보안관리팀의 경로 통제를 받으며 환자가 도착하자 순식간에 기도 삽관을 하고 중심정맥관을 넣었다. 레벨D 보호구를 착용하면 행동이 2배는 느리게 느껴진다. 웅웅거리는 필터 소리에 동료 간호사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격리실 내부에서 일하는 4시간은 그야말로 초집중 상태다.

지난해 10월 격리중환자실 근무를 시작했다. 확진된 중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거나 투석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기와 같은 특수 치료를 마칠 때까지 돌보는 업무를 맡는다.

“격리중환자실은 걱정과 불안이 머무는 곳이지만 기쁨과 보람도 많습니다.”

매일 기다리는 이별

목에 기관절개술을 한 환자가 입원 내내 우울해했다. “할머니~” 하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반응은 같았다.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주자 환자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은 듯 이내 끊어 버렸다. 어떤 것을 하면 좋아하실지 고민했다. “우리 운동을 해보는 거 어때요?” 동료 간호사들과 환자를 침대 난간에 앉히고 쉬운 동작을 함께 했다. 경직된 몸을 풀자 긴장도 풀어지는 듯했다. 이때다 싶어 핸드폰을 꺼냈다. “김치 해봐요, 김치~” 얼굴에 미소 띤 환자의 표정을 사진에 담았다. 기분이 나아질수록 몸 상태도 호전되었다. 곧 일반 병동으로 전동 결정이 났다. ‘또 한 번 무사히 위기를 넘겼구나!’ 오늘처럼 반가운 이별은 격리중환자실 간호사들의 희망이자 보람이다.

기분이 좋아 격리실에서 찍은 사진을 엄마에게 보냈다. 아들의 웃는 표정보다 육중한 보호구만 보이는지 ‘위험한 데서 고생하네’라는 걱정 섞인 답문이 왔다. 코로나19가 끝나야 엄마의 “몸조심해”라는 당부도 끝날 것 같다. 어서 그날이 오기를 격리중환자실에서 침착하고, 치열하게 기다리고 있다.



레벨D 보호구를 착·탈의하는 것에도 적음 시간이 필요했다.

“중증 환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볼수록 코로나19가 참 무서워요.”

누구에게나 처음인 바이러스

“엄마 왜 거기 누워있어? 나랑 여행 가기로 약속했잖아.” 환자의 딸이 CCTV를 보며 전화기에 대고 이야기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엄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간호사들은 눈물을 삼키며 임종 면회를 진행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순간조차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슬픔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 가세요.” 격리중환자실에서 느끼는 코로나19의 실상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하다. 무증상자가 많다는 뉴스를 접하지만 중증 환자와 있다 보면 감염병에 익숙해지기는커녕 두려움이 쌓인다. 그래서 병원과 집만 오가며 최대한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긴 근래에는 9개의 베드가 비는 틈이 없었다. 각 부서의 간호사들이 모인 곳이지만 누구에게나 처음 만나는 상황의 연속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약과 치료법, 정보도 계속 쏟아졌다. 매일 ‘열공데이’에 동료들과 관련 논문을 공부하며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도 간호 현장에선 “이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격리중환자실 간호사들과 코로나19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 · 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카말리아 빈티 카마루자만입니다

카말리아 빈티 카마루자만은 말레이시아 사바에 위치한 여성 및 아동 병원에서 핵의학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카말리아는 2019년부터 1년간 우리 병원 핵의학과에서 연수를 받으며 영상 해석과 최신 트레이서 활용 기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 활동에 참여했다. 당시 지도교수는 핵의학과 김재승 교수였다.

근무하는 병원을 소개해달라

여성 및 아동 병원의 핵의학과는 의사, 약사, 물리학자를 포함한 45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여러 갑상선암 환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5개의 방사성요오드요법 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을 활용하고 뼈, 신장, 갑상선, 폐 등 여러 부위에 대한 스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수 기간 무엇을 배웠는지

서울아산병원은 중풍, 간질, 뇌종양, 치매, 파킨슨병 환자 관리를 위해 다양한 뇌영상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장핵의학, 종양학 및 일반 핵의학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밖에도 각종 핵의학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임상 및 기초연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연수 기회를 주신 김재승 교수님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에 머무는 내내 큰 도움을 준 핵의학과 동료들과 당시 국제교류팀 정경원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카말리아(맨 앞)가 말레이시아 여성 및 아동 병원에서 핵의학과 방사성요오드 병동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인상깊었던 점은

서울아산병원은 폭넓은 경험과 여러 종류의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해 고강도 업무 환경 속에서도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MIS 3.0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최선의 치료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빨리빨리' 문화, 역동성 역시 서울아산병원의 큰 장점이다.



말레이시아 여성 및 아동 병원 핵의학과에서.

앞으로 계획은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연수 경험은 말레이시아에서 핵 신경학 의료 서비스와 연구 개발을 확장하고 싶다는 꿈을 이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이곳 의료진과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카말리아는 2020년 초 우리 병원 뉴스매거진 '웰컴투 AMC' 코너에 참여했다. 지도교수인 핵의학과 김재승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카말리아(왼쪽).



2020년 동관 앞 공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카말리아(앞줄 왼쪽 두 번째).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 다양한 국적의 많은 해외의학자들이 고난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 병원에 다녀갑니다. 'Miss U, AMC' 코너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해외의학자들이 현지 병원에서 의학자로 생활하며 들려주는 연수 후 이야기를 게재합니다. 해외의학자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교류팀에서 번역을 지원합니다.

굽은 허벅지 골절에서 반대편 금속정을 이용한 수술결과



정형외과 김지완 부교수

정형외과 김지완 부교수가 ‘만곡이 있는 대퇴골 비전형 골절에서 반대편 금속정을 이용한 수술결과’라는 논문으로 대한골절학회에서 국제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고령 여성에서 많은 대퇴골 비전형 골절 환자에서 환자의 대퇴골 형태에 맞는 반대편 내고정물을 선택함으로써 수술 부작용은 줄이고 골유합 성공률은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수술 방법 및 결과는 일본, 대만에서 강의 초청을 받는 등 아시아권에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퇴 만곡이 심한 아시아인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실>

Q. 연구의 배경은? 대퇴골 비전형 골절은 2008년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특히 한국인(아시아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치료가 힘들고 골유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비전형 골절은 교통사고와 같은 심한 외력이 아닌 골다공증과 관련된, 뼈가 약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피로골절로 여겨진다. 한국인 대퇴골의 특징적인 형태(허벅지가 휘어져 있는 O자 다리)는 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수술적 치료 시 적합한 형태의 내고정물이 없어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년 전 3D 프린팅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반대편 금속정을 사용한 경우 형태학적 일치도가 가장 우수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를 시작해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대퇴골 비전형 골절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여 피로 골절의 원인, 대퇴골 형태학적 차이, 치료 결과 등 지금까지 8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 연구는 그 중 7번째 연구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인의 대퇴골 형태학적 특징’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 성인 남녀 2,800례의 대퇴골을 분석함으로써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대퇴골 만곡이 많음을 밝혀냈다. 대퇴골 골절에서는 금속정을 이용한 수술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처럼 만곡이 있는 경우 형태가 맞지 않아 금속정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진행했던 3D 프린팅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반대편 금속정을 이용해서 환자의 대퇴골의 원래 형태대로 회복 및 고정을 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수술을 진행하여 100%의 골유합 및 기존 결과보다 빠른, 골유합 기간의 단축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대퇴골 비전형 골절과 관련하여 현재 3개의 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완전 골절이 발생하기 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피로 골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체형 및 골형태에 맞는 내고정물 개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 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 전문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고객에게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건강의학과 안명희 임상전임강사

업무 중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있자니 돌아서서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면전에서 정색하거나 화를 내자니 일이 커질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서비스 종사자로서의 역할이 의료인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응대하기 어려운 고객은 어디든 존재하고 이들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들을 대할 때는 우선 상대가 불쾌한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언행에도 우리가 스트레스나 상처받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륜스님이 욕을 먹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쁜 말은 ‘말의 쓰레기’다.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당신에게 쓰레기를 던지면 쓰레기통에 탁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나한테 쓰레기를 줄 수 있어!’라고 움켜쥐고 생각하지 마라.” 상대가 어떤 말을 뱉더라도 내가 주워 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이걸로 스스로를 상처 주지 마십시오. 애초에 나에게 대해 모르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 내 기분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동요가 클 때는 이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 분노는 이차적인 감정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없애기 위해 대신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응대하기 어려운 고객으로 인한 분노 감정에 휩싸일 때 그 아래에는 많은 경우 당황, 놀라움, 무력감, 불안 등이 있습니다. 혼란을 견디기 힘들어서, 무력하다는 감정을 인

정하고 싶지 않아서 등 각각의 이유로 분노가 이러한 감정을 대신합니다. 화의 표출은 강렬한 에너지를 동반하다 보니 순간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화로 대응할 때 해결은 요원해집니다. 실제 나의 감정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이성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응대하기 어려운 고객은 의료진에게 자신들이 ‘갑’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질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원초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비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을 조절합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환자·보호자라는 ‘약자’ 입장으로 비판을 피할 것이라는 심리가 이들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번 묵인하고 용인할 수는 없지만 때마다 부딪힐 수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색을 하든, 무시하든, 불쾌감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의 로란색 경고 카드를 만들어 내보이는 것은 이들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정도를 넘어서는 폭력에는 물리력, 공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괄 적용 가능한 속 시원한 정답은 없겠으나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매끄럽게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은 노련해질 것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미셸 오바마의 발언처럼 상대가 어떻게 굴든 여러분은 품위 있게 직장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안명희 임상전임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건강증진센터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스트레스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맞습니다. 직원들의 크고 작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고민상담소’ 코너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발적 고립, 강제적 고립



연구기획팀 김향연 주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영화 '김씨표류기'가 생각났다. 한강으로 뛰어든 자살마져 실패한 남자 김씨는 철새보호구역인 밤섬에 강제 고립돼 자급자족 생활을 한다.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것도, 야외에서 자는 것도 거칠 것이 없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짜장면에 대한 욕구가 차오른 그는 농사를 지으며 희망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보게 된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로 자발적 고립을 택한 여자 김씨는 하루 종일 방안에서 싸이월드 속 꾸며진 거짓 자아로 세상과 소통하지만 유일한 낙은 달의 사진을 찍는 것이다. 달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밤섬에 살고 있는 남자 김씨를 발견하고 짜장면을 향한 그의 노력에 감동 받는다. 그 자극에 여자 김씨는 결국 방에서 나온다. 그리고 여자 김씨와 남자 김씨가 서울 한복판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 공교롭게도 나도 김씨다.

나의 김씨 표류기는 2016년 4월 1일 시작됐다. 아버지가 식도암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좋겠다고 큰오빠에게서 전화를 받은 날이다. 병이 그렇게 진행되기까지 뭘 했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식도암 3기와 4기 사이에 걸쳐져 있는 진단 결과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어떡하면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을지에 나의 모든 시간과 생각이 집중됐다. 아버지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종종 울컥하셨는데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 다독이느라 내가 아버지의 엄마가 된 느낌이었다.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진행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워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영혼이 아워어 갔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는 3인 1조로 모든 시간을 긴장해야 했다. 나의 시간에 표류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영화 속 여자 김씨처럼 극단적인 고립생활은 아니었지만 나의 사적 영역에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내 생활을 아버지의 투병에 오롯이 집중했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 없었다. 표류기가 시작된 후 근무시간에 티를 안 내려고 처음 아버지가 입원하기 전에는 사무실에 알려지도 않았다. 업무 특성상 결산을 해야 할 때는 야근이 잦았는데 보호자 모드일 경우에는 야근이 어려웠기 때문

에 묵묵히 나의 분량을 커버해준 파트너 차설희 선생님께서 오래도록 기억할 은혜를 입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주일 교회에서도 방송실에 박혀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조금씩 차단했다. 대신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에 집중했다.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어떤 방송을 즐겨보는지,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등 아버지 에 대한 모든 것을 압축해서 발견하는 투병 생활이었다. 2018년 크리스마스를 얼마 두지 않은 날 아버지가 소천하셨다.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더 잘하지 못한 순간순간이 후회스러워서 2019년 늦가을까지도 나의 자발적 고립이 계속되었는데, 종양내과 표지판만 봐도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나는 바람에 서관 1층도 쉽게 가지 못했다. 나를 지켜보던 동료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우울하면 안된다며 2020년에는 함께 유럽여행이라도 가자고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며 여행 동선을 짜보자고 했다. 그렇게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웠더랬다. 하지만 2020년 초반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호기롭게 세웠던 유럽여행 계획은 그저 웃긴 이야기의 하나로 소비되고 있다. 나는 팬데믹 고립으로 여전히 표류 중이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좋았던 시간을 떠올리며 글을 쓸 만큼 눈물이 어느 정도 찾아들었다. 이렇게 글로라도 느리지만 천천히 소통하며 성장하고 싶다. 2022년에는 나의 김씨 표류기가 끝나고 한결 성숙한 김씨로 발전하기를 스스로 응원해 본다.

김씨표류기
 감독 : 이해준
 배우 : 정재영(남자 김씨 역), 정려원(여자 김씨 역)
 장르 : 드라마
 개봉 : 2009. 5. 14.



심장검사팀
송원철 사원입니다



※ 병원보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AMC 루키 코너를 진행합니다.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고 싶은 동료들의 추천 혹은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고 있는 일은 심혈관조영유닛 소속으로 당일입원실에서 심혈관 검사와 시술 전후 간호, 당일 입원 및 퇴원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16명의 환자를 만나는데 “능숙하고 막힘없이 잘 해주셔서 안정감이 들고 편안했다” “주사 때문에 긴장하면서 왔는데 한 번에 안 아프게 해줘서 고맙다”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쁜 업무에 지치다가도 힘이 나는 순간입니다.

일하면서 힘든 점은 검사 관련한 업무 이외에 환자와 보호자의 여러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지연이 발생할 때, 그리고 제가 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불만)이 있을 때가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에서 안내문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고 환자 대기공간에 안내 영상을 틀어 놓아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퇴근 후 일상은 당일입원실 특성상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서점이나 카페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거나 집에서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며 운동을 합니다. 최근에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관심이 생겨서 올해 열심히 배운 뒤 직접 제작해서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험하고 배우면서 환자의 안녕을 위한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미숙한 부분도 있고 가끔 실수도 하는데 제가 놓치는 부분까지 잘 챙겨서 가르쳐주고 챙겨주시는 심혈관조영실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뛰어난 의술에 더해진 친절과 배려
 외래 방문부터 수술, 퇴원까지의 모든 과정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고 환자가 결정은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혈관외과 조용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5월 초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수술이라고 하지만, 입원이나 수술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 교수님은 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려주시고 치료 방향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안심되었습니다. 또한 수술이 예정보다 1시간 지연되었는데 이를 미리 설명해주시고 수술 이후 회진 때에서도 지연된 것에 대해 거듭 마음 쓰며 아끼게 해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수술도 잘 되고 경과도 만족스럽습니다. 교수님의 뛰어난 의술에 더해진 친절과 배려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세하고 친절할 설명
 우리 아이가 입원했을 때, 어린이병원간호팀 강애진 간호사 선생님께서 항암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주의할 점은 2시간 가까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기간 중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이전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며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 달라라며 명심하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첫 항암 후 집에 와서 설명은 듣었는데도 궁금했던 사항을 문자로 문의하니 자세한 설명이 담긴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입원 중에 만나면 항상 밝게 웃으면서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고 질문이 많은 저에게 항상 친절히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감사 우체통'은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병원보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연휴, 휴가 동안 반려동물 걱정 마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연휴 동안 오랜 시간 집을 비우기 어렵다.
반려동물을 집에 홀로 둔 채 선뜻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반려인구가 늘면서 펫시터, 펫호텔, 펫유치원 등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걱정을 하고 있을 직원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했다. <편집실>

★ 펫시터, 반려동물을 부탁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사람인 '펫시터(pet+sitter)'를 고용하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집을 떠날 수 있다. 펫시터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펫시터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문 교육을 받은 펫시터를 구할 수 있고, 반려동물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찾을 수도 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도 펫시터를 자청하는 글을 볼 수 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다. 펫시터가 반려동물 훈련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돌본 경험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펫시터에게 맡길 때에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습관,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펫시터 예약 앱

- 펫플래닛 (petplanet.co)
- 도그메이트 (dogmate.co.kr)
- 와요 (wayopet.com)



★반려동물과 함께 '펫캉스'



여행 시 집에 혼자 남은 반려동물이 걱정된다면 직접 데려가는 방법도 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호텔업계도 다양한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패키지에는 펫 유모차, 펫 간식, 펫케어 룸, 펫 웰컴키트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일부 호텔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스파와 마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펫캉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반려동물과 차량 이동 시 주의사항은

차량 이동이 익숙치 않은 동물은 멀미를 할 가능성이 높다. 후각이 예민한 강아지는 차량의 기름과 배기가스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계속 코를 핥고 숨을 헥헥거리고 몰아쉬면 멀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심할 경우 구토를 하기도 한다. 이동 전 적어도 2~3시간 전에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차량용 어깨끈을 구비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쓰던 방석을 아래에 깔아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1~2시간마다 정차해 맑은 공기를 쐬게 하고 용변을 보게 해주는 것도 좋다.

★반려동물 유치원 보내기



반려동물 유치원은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울타리를 둘러친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는 집단생활 형태로 이뤄진다. 훈련사들은 반려동물이 등원하면 간단하게 귀, 발바닥, 피부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공놀이와 산책 등을 하며 놀이 시간을 갖는다. 교육 시간에는 장난감을 이용해 사람과 교감하는 훈련을 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낮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다른 동물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하므로 미리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사전에 해당 시설을 방문해 반려동물이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형견과 소형견이 분리되어 있는지, 훈련사가 밤새 1명 이상 상주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둔다면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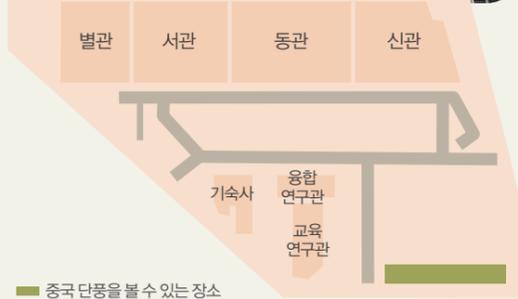
부득이하게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두고 가야하는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1박 2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끼니를 잘 챙겨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고양이는 집사가 집을 비우면 식음을 전폐하는 사례도 있어 떠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영양을 보충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화장실 모래도 넉넉히 쌓아두고 물그릇과 사료는 여분을 준비해 집안 곳곳에 놓아두어야 한다. 강아지는 사료를 한꺼번에 먹어버릴 염려가 있으니 타이머가 달린 자동 배식기 사용을 추천한다.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고 해도 주변 지인에게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살펴보도록 부탁을 하면 좋을 것이다.

※ 자료 출처: 「애니멀피플」,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무야 나무야

중국 단풍

분류 무환자나무목 단풍나무과의 낙엽교목
학명 Acer buergerianum
원산지 중국



우리 병원 중앙주차장 바깥쪽에 울창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 단풍은 흔히 볼 수 있는 단풍나무 종류 중 하나다.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 땅에 자리 잡은 나무들은 나무의 고향을 넣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다. 당 단풍은 중국에서 들어온 나무로 중국의 옛 이름인 당을 붙였다. 일본 단풍은 일본에서, 네군도 단풍은 미국 태평양 연안지역인 네군도 지역에서 들어온 단풍이다. 중국 단풍은 세갈래 단풍나무로도 불린다. 영문명은 'trident maple'로 한글로 옮기면 '삼지창 단풍나무'인데 잎의 모양이 세 갈래로 갈라져 붙여진 이름 같다. 키는 15m까지 자라고 나무껍질은 회갈색으로 조각조각 갈라지며 벗겨진다. 꽃은 4월에 개화하는데 연한 노란색이고, 길이는 2mm 정도로 작다. 한방에서는 중국 단풍의 뿌리 껍질과 잎을 약으로 쓰는데 사지마비 통증, 무릎관절염, 골절상 등 소염작용과 해독에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단풍과 일반 단풍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일반 단풍은 잎사귀가 손가락처럼 깊게 갈라졌지만 중국 단풍은 잎이 갈라졌으나 깊지 않고 오리발 모양처럼 생겼다. 수피 또한 일반 단풍의 껍질은 비교적 단정하고 매끄러운 반면, 중국 단풍의 껍질은 거칠게 갈라져 있고 벗겨지는 특징이 있다. 열매는 일반 단풍과 동일하게 두개의 씨앗이 붙어서 날개가 달려 있다. 10~11월경에는 자주색과 분홍색을 섞은 듯한 보라색 빛깔로 아름답게 단풍이 든다. 꽃말은 게으름뱅이다.

※ 자료 제공 : 시설팀 함종덕 직원

※ 병원보는 '나무야 나무야'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 공원을 산책하며 만날 수 있는 나무와 꽃, 풀을 소개합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골든타임.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중차대한 순간을 뜻하는 의료계 용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심심찮게 쓰인다. 특히 사고현장에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대표적인 콩글리시다.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1시간 내 처치를 강조하기 위해 '골드아워'라고 부른다.

골든타임

☹️ golden time 😊 golden hour

Let's Talk

- A Why are ambulance sirens so loud?
앰불런스 소리는 왜 클까?
- B They need to be loud and get through, because of a golden hour to save lives.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해야 길을 비켜주지.

기분 따라 행동하다 낭패를 볼 때마다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는 마인드 컨트롤은 원어민에게는 brainwash(세뇌)의 뜻으로 전해지기에 올바른 표현인 self-control을 쓰자.

마인드 컨트롤

☹️ mind control 😊 self-control

Let's Talk

- A Someone dented my car. I can't stand it.
누가 내 차를 긁어냈어. 참을 수가 없어.
- B Take it easy!
You need to get some self-control.
진정해. 마인드 컨트롤부터 하자.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정작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유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병원보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중환자간호팀 조순남 사원

'폭염 속 코로나19 진료 현장 방문' 기사가 좋았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힘드시겠다고 느꼈던 곳입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직원들을 격려해주니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응급간호팀 박경훈 사원

'함께 보고 싶은 영화-경험은 나이 들지 않는다'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직 2년 차인 저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약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려운 길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어리숙한 시간이 삶의 지혜가 되어 미래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진단검사의학팀 김미란 과장

'마음건강노트-업무 실수 잘 극복하기'를 읽고, 성장 마인드셋이 내가 가진 마인드셋이며 나의 능력은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장검사팀 한운아 사원

'사람&이야기-쇼핑백 편지'를 읽고 환자를 위한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 감동 받았습니다. '내가 환자라면'이라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교수님의 진심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에 고객칭찬 최우수직원이라는 값진 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건강운영팀 오선미 사원

'문화·생활정보-여름철 식물관리'가 가장 좋았어요! 바깥 활동을 좋아하던 저는 코로나 이후 실내 식물 키우기라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식물 초보자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정진료팀 김명숙 과장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에 지칠 만큼 지쳤었는데 '여름특집-코로나 없는 여름휴가를 꿈꾸며'가 힘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 이 시기에 코로나 이후의 삶을 그리는 동료들의 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로도 되고, 응원도 하고 싶고, 재미도 있고,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 갈 마음에 기대와 설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지난호 정답

제658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여름특집 - 코로나 없는 여름휴가를 꿈꾸며'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심장검사팀 송원철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당첨자 명단은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